

간호대학생의 평가두려움과 시험불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Fear of Evaluation, Test Anxiety, and Social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조옥희*, 황경혜**, 임종미***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Ok-Hee Cho(ohcho@kongju.ac.kr)*, Kyung-Hye Hwang(hkh@ssc.ac.kr)**,
Jong-mi Lim(0408ljm@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시험불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 383명으로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 및 사회불안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시험불안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을 30% 예측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은 경제상태, 간호학 전공만족도, 학업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45$, $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29$, $p<.001$) 및 시험불안($r=.29$, $p<.001$)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시험불안이 사회불안의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사회불안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사전에 스크리닝하여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중심어 : |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시험불안 | 사회불안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ear of evaluation and test anxiety on social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383 nursing students in a university and surveyed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evaluation fear, test anxiety and social anxiety from June to July 2015.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fear of positive evaluati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est anxiety were found to affect social anxiety, and these variables predicte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s by 30%. The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s verifi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of major in nursing, and academic stress, a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r=.45$, $p<.001$), fear of negative evaluation ($r=.29$, $p<.001$) and test anxiety ($r=.29$, $p<.001$).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fear of evaluation and test anxiety of nursing students are verified to be factors affecting social anxiety. We suggest that a social anxiety intervention program be developed and applied for nursing students. Also, it is necessary secure a strategy to apply the intervention program by screening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s in advance.

■ keyword : | Fear of Evaluation | Test Anxiety | Social Anxiety | Nursing Student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의 역량과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간호교육계에서는 학습성과에 기반한 교육체제 운영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다[1].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 중 팀과제와 조별 토론을 수행하고 동료나 교수 앞에서 발표하거나 실습 수행, 디브리핑 등의 수행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평가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학과의 학습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과활동은 물론 비교과활동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하고 수시로 점검 및 평가를 받게 되는데[1],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두려움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2]. 평가에 대한 부담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긍정적 평가 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3]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이 표출되어 타인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긍정적 평가를 불편해하는 것을 의미한다[2].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4],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정 상관관계가 있다[3].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시작하면서 임상현장에 대한 불안과 환자에게 나쁜 소식 전하기에 대한 걱정과 간호의 제공과정에서 실수와 실패의 두려움을 언급하였다[5]. 그리고 대학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이 될수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꼈다[6].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대학생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다[7].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건 후 심사숙고하는 부적응적 인지과정과 연관되고, 사회적인 위축행위를 표출하는데 영향을 준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회피 및 불안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9] 중요하다.

시험불안은 시험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경

험하는 심리적 상태로 스트레스와 불안의 정도에 따라 학습결과와 시험 수행을 해칠 수 있다[10]. 시험불안이 낮은 학생은 학습에 도전감을 느끼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11].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40% 이상이 약물계산 시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국가고시를 앞둔 학생의 시험불안은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12]. 대학 교육과정에서 성적은 취업 및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간호대학생들은 시험으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중압감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13]. 특히, 시험불안에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며[14],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대인불안이 더 높아지고 대인불안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방식이 증가한다[15].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질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16]. 최근 간호교육인증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 및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평가두려움, 시험불안과 사회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과 건강한 학업 적응을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친숙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발표, 그룹토론 참여 등의 대학 환경에서의 사회적 발달 과제에 노출되며 사회불안을 경험한다[17]. 사회불안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18],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불안 정도가 높았으며,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지도한 후에 불안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사회생활에 대해 불안해하는 학생들은 상황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될 수 있다[2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환자, 동료, 타직종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2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 정도와 사회불안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최근 사회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시험불

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 증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시험불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사회불안 증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평가두려움, 시험불안과 사회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평가두려움, 시험불안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평가두려움, 시험불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평가두려움, 시험불안과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불안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일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학생 40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실험자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훈련받은 연구조사원 1인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에 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기간은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이었고 설문지 응답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400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설문지 작성이 불충분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17부를 제외한 총 38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이었을 때 최소 356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수 383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3.1 평가에 대한 두려움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이 표출되어 타인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불편해하는 것을 의미하며[2], Weeks, Heimberg와 Rodebaugh[3]가 개발한 도구를 Park, Lee와 Oh[22]가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10점 Likert척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칭찬이나 존경, 주목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불편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72점의 범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9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Lee와 Oh[22]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5-.88로 일반인과 대학생 집단은 Cronbach's α .85, 사회공포증 환자집단은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5였다.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4], Watson과 Friend[23]가 개발한 도구를 Leary[24]가 단축형 도구로 수정하였고 이를 Lee와 Choi[4]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는 인상이나 결점, 실수 등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걱정이나 염려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

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 12-6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Choi[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3.2 시험불안

시험불안은 시험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로[10] Pintrich와 DeGroot[25]가 개발한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를 Kim[1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시험을 보는 동안 긴장, 걱정을 많이 해서 불안정하고 당황스럽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1이었다.

3.3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해서 발생하는 불안 증상으로[26] Watson과 Friend[23]가 개발한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를 Lee와 Choi[4]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상황에서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을 느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피영역과 불안영역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Watson과 Friend[2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7이었고 Lee와 Choi[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2-.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에 훈련 받은 연구원이 강의실로 가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간호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결과는 연구목

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과 비밀보장, 중도에 그만두거나 불참해도 해가 없음을 설명 하였다. 작성된 내용은 코드화하여 보관하며 종료되면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9.4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가두려움, 시험불안 및 사회불안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 검정은 Duncan's multiple test로 확인하였다. 평가두려움, 시험불안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사회불안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미만으로 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2세(18-42세)였으며, 여학생이 96.9%였다. 1학년이 27.9%, 2학년이 22.5%, 3학년이 24.5%, 4학년이 25.1%였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62.1%였고, 경제상태가 '중'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70.2%였다.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중'인 대상자는 61.1%, 학업스트레스가 '상'인대상자는 73.6%,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상'인 대상자는 64.5%였다[표 1].

2.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 및 사회불안 정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23.96점이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38.17점이었다. 시험불안은 평균 13.12점이었으며, 사회불안은 83.58점이었다. 사회불안의 하부영역 중 불안영역은 5점 만점에 3.13점, 회피 영역은 2.85점이었다[표 2].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N=383)

특성	구분	Total	사회불안		
		n(%) or Mean±SD (range)	Mean±SD	t/F	p
연령(세)		21.2±3.3 (18-42)			
성별	남자	12(3.1)	2.75 ± 0.43	-1.62	.107
	여자	371(96.9)	2.99 ± 0.52		
학년	1학년 ^a	107(27.9)	2.88 ± 0.53	2.27	.080
	2학년 ^b	86(22.5)	3.00 ± 0.54		
	3학년 ^c	94(24.5)	3.05 ± 0.49		
	4학년 ^d	96(25.1)	3.02 ± 0.51		
종교	있음	145(37.9)	2.99 ± 0.58	0.19	.852
	없음	238(62.1)	2.98 ± 0.48		
경제상태	상	39(10.2)	2.73 ± 0.59	5.26	.006* a(b,c)
	중	269(70.2)	3.01 ± 0.51		
	하	75(19.6)	3.02 ± 0.49		
간호학 전공만족도	상 ^a	247(64.5)	2.90 ± 0.50	11.37	<.001** a(b,c)
	중 ^b	115(30.0)	3.13 ± 0.50		
	하 ^c	21(5.5)	3.26 ± 0.58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	25(6.5)	2.79 ± 0.63	2.78	.064
	중	234(61.1)	2.97 ± 0.51		
	하	124(32.4)	3.05 ± 0.50		
학업 스트레스	상 ^a	282(73.6)	3.03 ± 0.53	5.24	.006* a)b)c
	중 ^b	79(20.6)	2.86 ± 0.48		
	하 ^c	22(5.8)	2.78 ± 0.41		

^{a,b,c} Duncan multiple test, * $p < .05$, ** $p < .001$

표 2.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 및 사회불안의 수준

(N=383)

변수	적도 점수범위	Mean±SD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0-9	2.99 ± 1.63 23.96±13.0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5	3.18 ± 0.72 38.17±8.59
시험 불안	1-5	3.28 ± 0.85 13.12±3.41
사회 불안	1-5	2.98 ± 0.52 83.58±14.53
회피	1-5	2.85 ± 0.55
불안	1-5	3.13 ± 0.5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는 경제상태가 ‘상’이라고 답한 대상자보다 ‘중’ 또는 ‘하’라고 답한 대상자의 사회불안이 더 높았다($F=5.26, p=.006$). 그리고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상’이라고 답한 대상자보다 ‘중’ 또는 ‘하’라고 답한 대상자의 사회불안이 높았고

($F=11.37, p<.001$),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가 사회 불안이 높았다($F=5.24, p=.006$)[표 1].

4.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 및 사회불안간의 관계

사회불안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45, 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29, p<.001$) 및 시험불안 ($r=.29, p<.001$)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불안 중 회피영역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보통 수준의 정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시험불안과는 약한 수준의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불안 중 불안영역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시험불안과 보통 수준의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

표 3.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과 사회불안의 관계

(N=383)

Variables	사회불안		
	전체	회피	불안
	r(p)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5 (<.001**)	.45 (<.001**)	.38 (<.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9 (<.001**)	.18 (<.001**)	.36 (<.001**)
시험불안	.29 (<.001**)	.19 (<.001**)	.35 (<.001**)

** $p < .001$

5.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 중 경제상태, 간호학 전공만족도와 학업 스트레스를 공변량으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을 독립변수로, 사회 불안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18~.45로 .80이상인 설명 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은 독립적이었으며, Durbin Watson 통계량은 2.03으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의 문제도 없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58~0.987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13~1.290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3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 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이값 검토를 위한 Cook's Distance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산출된 사회불안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26.33,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3개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을 30% 예측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N=383)

Predictors	B	Standad Error	Standardized β	t	p
상수	14.16	5.53		11.60	<.001**
긍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	0.39	0.05	.35	7.62	<.001**
시험불안	0.62	0.21	.15	2.98	.003*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	0.23	0.88	.14	2.71	.007*
$R^2=0.30, \text{ Adjusted } R^2=0.29, F=26.33, p<.001$					

*Adjusted for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with nursing and academic stress

* $p<.05$, **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평가두려움과 시험불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23.96점(72점 만점)으로, Seo [27]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도인 20.69점보다 조금 높았고, Weeks 등[2]의 연구에서 미국 심리학과 대학생들의 24.42점과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신입생부터 간호학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므로 학업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고[28]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될까봐[29] 부담을 느끼면서 일반 대학생보다 두려움의 정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38.17점(60점 만점)이었다. 이는 Begley와 White[30]의 연구에서 아일랜드 간호대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도인 34.71점과 유사하였으며, Weeks 등[2]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의 19.95점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영국의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 실습에서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폭언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대처기전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31],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커진다고 보고하였다[32].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예비간호사로서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경험이 관련될 수 있으며, 임상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의 부담과 부적응에 대한 걱정으로 지각되는 두려움이 커져 일반 대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은 전체평균 13.12점(20점 만점), 평균평점 3.28점(5점 만점)이었다. 이는 김수미[11]의 연구에서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하는 학기 시작 직후의 시험불안 정도인 2.90점보다 높았고, 시험 전주인 14주의 시험불안 정도인 3.13점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Kim, Park과 Jeon[33]의 연구에서 인체생리학 수업에 참여하는 간호대학 2학년생의 시험불안 정도인 17.32점보다는 낮았다. Brewer[34]도 간호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시험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여 본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전공 이론교과목 뿐 아니라 임상실습 교과목에서도 퀴즈와 수기술 시험 등 평가의 기회가 많으므로 학업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걱정과 부담이 많아져서 시험불안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Ranjita와 Michelle[35]은 1, 2학년 학생이 3, 4학년 학생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하여 불안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은 83.58점(140점 만점)으로, 이는 Choi[3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 정도인 72.5점보다 다소 높았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 증상으로 지속적인 두려

움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26].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중위권 61.1%, 하위권 32.4%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간호학 전공교과목의 학습 부담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는 사회불안과 부정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18],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6] 본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사회불안의 하부 영역 중 회피보다 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Choi[3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사회적 회피보다 불안이 높아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수업 중의 과제발표나 토론을 하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느낌이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37],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정서적으로 괴롭고 불안한 경향이 더 커지면서[18] 부여된 상황에 대한 불안의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회피와 불안, 인지적 과정 간의 관계는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은 경제상태, 간호학 전공만족도, 학업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상태가 중이나 하인 경우가 사회불안이 더 높았는데, 이는 이란의 간호대학생의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1].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중에서 경제상태가 하인 경우가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높았으며[38] 사회불안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매개변수임을 보고된 것을 고려할 때[39],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에 대학생 활과 학업의 병행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반면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즐길 여유가 없어 우울 성향이 증가될 수 있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중이나 하인 경우가 사회불안이 높았는데, 타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진학동기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나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없어[40] 본 결과와 달랐다. 간호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자아효능감,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41], 간호학 관심도와 미래 간호사 상에 대한 생각 없이 취업의 전망만 보고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효능감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학업 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가 사회불안이 높았다. 이는 학업성취에 더 성취욕구가 강한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에 몰두하고 관계형성은 사회적 불안 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18]라고 하여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Ranjita와 Michelle[35]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았고 불안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되며,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상황적 불안 정도가 증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추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의 학업변인과 사회불안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시험불안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29],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7],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28]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시험불안은 사회적 지지와 매우 높은 관계가 있고, 특질 불안 및 우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42]. 따라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불안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또는 평상시에 혼자서 지내길 즐겨하는 학생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 및 대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며[7], 시험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과도한 땀과 오심, 어지러움,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과 부정적인 어투, 무동기와 시험상황에 대한 회피와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사회·정서적인, 행위적인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3]. 또한 대학생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사회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32]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평가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예상되는 테스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이 가중되는 간호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사회불안을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를 파악하여 그 중요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여러 대학의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전과 후로 구분하여 시점별로 변수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평가두려움이 시험불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사회불안은 경제상태, 간호학 전공만족도, 학업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시험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시험불안을 인지하고 사회불안의 감소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사회불안의 영향요인과 인지적 과정에 대한 상관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학적 특성과 교육변인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사회불안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생의 사회불안을 사전에 스크리닝하여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년도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대학용 편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 [2] J. W. Weels, R. G. Heimberg, and T. L. Rodebaugh,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Assessing a Proposed Cognitive Compon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22, No.1, pp.44-55, 2008.
- [3] J. W. Weeks, T. A. Jakatdar, and R. G. Heimberg, "Comparing and Contrasting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as Facets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9, No.1, pp.68-94, 2010.
- [4] 이정윤, 최정훈,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 심리학 회지: 임상*, 제16권, 제2호, pp.251-264, 1997.
- [5] F. Sharif and S. Masoumi,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BioMed Central Nursing*, Vol.4, No.6, pp.1-7, 2005.
- [6] 한가희, *대학생의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7] 전영주, 박기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제11권, 제2호, pp.59-73, 2011.
- [8] C. G. Campbell, K. L. Bierman, and P. C.

- Molenaar, "Individual Day-to-Day Process of Social Anxiety in Vulnerable College Studen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20, No.1, pp.1-15, 2016.
- [9] 홍영근, 문지혜, 조현재,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0권, 제1호, pp.117-134, 2011.
- [10] <https://www.verywell.com/what-is-test-anxiety-2795368>
- [11] 김수미, *사이버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시험불안, 교수설계수준, 몰입 및 성취도의 구조 적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2] 이선혜, 김진경, "간호대학생의 국가고시 관련 시험불안,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77-185, 2010.
- [13] 김영희, "간호대학생들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료분석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003-2014, 2011.
- [14] 노윤구, 이영숙.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633-643, 2016.
- [15] 박순주, 배다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대인불안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권, pp.305-215, 2015.
- [16] 차경숙, 전원희, 홍성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불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권, pp.324-333, 2014.
- [17] E. Y. Strahan,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4, No.2, pp.347-366, 2003.
- [18] C. A. Brook and T. Willoughby, "The Social Ties That Bind: Social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Across the University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4, pp.1139-1152, 2015.
- [19] 이숙희,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539-547, 2008.
- [20] R. M. Shepherd, "Volitional Strategies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Quarterly*, Vol.9, No.4, p.4, 2006.
- [21] S. Ghezelbash, F. Rahmani, H. Peyrovi, and M. Imamloo,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of Tehran Universities of Medical Scienc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edical Education*, Vol.4, No.1, pp.85-90, 2015.
- [22] 박서정, 이정애, 오강섭, "한국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PES)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제29권, 제1호, pp.205-221, 2010.
- [23] D. Watson and R. Friend,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3, No.4, pp.448-457, 1969.
- [24] M. R. Leary,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9, pp.371-375, 1983.
- [25] P. R. Pintrich and E. V. De 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1, pp.33-40, 1990.
- [2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서울: 학지사, 2013.
- [27] 서연주, *한국판 긍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PES)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들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8] S. Shin, "Influence from The Academic Stress by The Achievement Pressure of Their Parents

- and Adjustmen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1, pp.6756-6766, 2014.
- [29] 김성주, 이영순,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제14권, 제3호, pp.1919-1938, 2013.
- [30] C. M. Begley and P. White, "Irish nursing students' changing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during Their Pre-registration Programm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2, No.4, pp.390-401, 2003.
- [31] H. Hoel, S. I. Giga, and M. J. Davidson, "Expectations and Realities of Student Nurses' Experiences of Negative Behaviour and Bullying in Clinical Placement and The Influences of Socialization Processes," *Health Services Management Research*, Vol.20, No.4, pp.270-278, 2007.
- [32] 박지연, 양난미,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 제2호, pp.363-388, 2014.
- [33] 김나현, 박지연, 전상은, "사례기반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인체생리학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초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78-87, 2015.
- [34] T. Brewer, "Test-Taking Anxiety among Nursing &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Vol.40, No.11, pp.22-29, 2002.
- [35] M. Ranjita and M. Michelle,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Its Relation to Their Anxiety, Time Management, and Leisure Satisfac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Vol.16, No.1, 2000.
- [36] 최연자, "명상요법이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회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정신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33-142, 2010.
- [37] <https://socialanxietyinstitute.org/what-is-social-anxiety>
- [38] 조옥희, 황경혜, 박혜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 우울 및 신체활동의 관계," *근관절건강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21-129, 2015.
- [39] X. Chen, Z. Wang, J. Gao, and W. Hu, "College Students Social Anxiety Associated with Stres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ygiene Research*, Vol.36, No.2, pp.197-199.
- [40] 황선경, 이윤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불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4호, pp.518-527, 2015.
- [41] E. Y. Jang, J. Choi, Y. C. Park, and S. M. Lee,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Predictors, Mediation Role of Identification with Nursing, and Gender Difference in South Korea," *Journal of Psychiatry*, Vol.18, No.6, pp.1-5, 2015.
- [42] 박병기, 임신일, "시험불안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4호, pp.875-894, 2010.
- [43] S. J. Salend, "Teaching Students Not to Sweat The Test," *Phi Delta Kappan*, Vol.93, No.6, pp.20-25, 2012.

저 자 소 개

조 옥 희(Ok-Hee Cho)

중신회원



- 199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가톨릭대학교(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간호, 간호교육

황 경 혜(Kyung-Hye Hwang)

정회원



- 198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가톨릭대학교(간호학박사)

▪ 2011년 8월 ~ 현재 :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간호교육

임 중 미(Jong-mi Lim)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 석사
- 2017년 현재 : 공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08년 3월 ~ 현재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간호